모주석의 5편 로작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모주석의 5편 로작

★

외 국 문 출 판 사
1972년 · 베이징

이 책은 1967년 12월 베이징 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모주석의 5편 로작》에 의하여 번역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인쇄



毛澤东

차　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

(1944년 9월 8일)

우리 공산당과 공산당이 령도하는 팔로군, 신사군은 혁명대오이다. 우리의 이 대오는 전적으로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며 철저히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업하는것이다. 장사덕동지는 우

리의 이 대오의 한 동지였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죽는 법이지만 죽음의 의의는 같지 않다. 옛적에 중국의 문학가 사마천은 《사람은 결국 한번 죽지만 죽음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도 있고 홍모보다 가벼운 죽음도 있다.》고 하였다.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은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이고 파쑈를 위하다가 죽거

나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자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은 홍모보다 더 가벼운 죽음이다. 장사덕동지는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그의 죽음은 태산보다 더 무겁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들이기때문에 우리에게 결함이 있을 때 남들이 비판지적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이나 우리의 결함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이 옳기만 하면 우리는 시정한다. 그 사람이 말한것이 인민에게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대로 한다. 《정병간정》이란 이 의견은 당외인사 리정명선생이 제기한것인데 그것이 좋은 의견이고 인민에게 유익한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채납하였다. 우리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옳은것을 견지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그릇된것을 시정하여가기

만 한다면 우리의 이 대오는 반드시 장성발전할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공통한 혁명목표를 위하여 방방곡곡으로부터 모여왔다. 우리는 또한 전국의 대다수인민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9,100만 인구를 가진 근거지를 령도하고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확대시켜야 전민족의 해방을 전취할수 있다. 우리 동지들은 곤난한 시기이면

성과에 눈을 돌리고 광명을 내다보며 우리의 용기를 북돋우어야 한다. 중국인민은 지금 고난에 시달리고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힘써 분투하여야 한다. 분투하자면 희생이 있게 되며 사람이 죽는 일이 늘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인민의 리익을 생각하고 대다수인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민을 위하여 죽는 것은 값있는 죽음이다. 그러

나 우리는 될수 있는 한 불필요한 희생을 적게 내야 한다. 우리의 간부들은 매개 전사들을 돌보아야 하며 혁명대오내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며 서로 도와야 한다.

금후 우리의 대오내에서 취사원이건 전사이건 할것없이 누가 죽든지간에 그가 조금이라도 유익한 일을 하였다면 우리는 그의 장사를 지내주고 추도회를 열어야 한

다. 이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인민들에게도 소개하여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추도회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전체 인민들을 단결시켜야 한다.

베쮼을 기념하여

(1939년 12월 21일)

베쮼동지는 카나다공산당원이였다. 50에 난 그는 중국의 항일전쟁을 원조하기 위하여 카나다공산당과 미국공산당의 파견에 의하여 불원만리하고 중국에 왔다. 작년 봄에 연안에 온 그는 얼마후 오대산에 가서 사업하던중

불행하게도 순직하였다. 한 외국사람으로서 추호도 리기적인 동기가 없이 중국인민의 해방사업을 자신의 사업처럼 하여왔으니 과연 이것은 어떠한 정신인가? 이것은 국제주의정신이며 공산주의정신이다. 중국공산당원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 레닌주의는, 자본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고

식민지, 반식민지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투쟁을 지지하여야만 세계혁명이 승리할수 있다고 인정한다. 베쮼동지는 이 레닌주의로선을 실천하였다. 우리 중국공산당원들도 이 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자본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단결하여야 하며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딸리아 및 다른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단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과 인민을 해방하며 세계의 민족들과 인민들을 해방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제주의이다. 이것이 바로 협애한 민족주의와 협애한 애국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국제주의이다.

조금도 리기적이 아니고 오로지 남을 위하는 베쮼동

지의 정신은 사업에 대한 그의 무한한 책임감에서, 동지와 인민에 대한 그의 무한한 사랑에서 표현되였다. 매개 공산당원들은 모두 그를 따라 배워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에 무책임하며 쉬운 일을 택하고 어려운 일을 겁내며 무거운 짐은 남에게 밀어놓고 자기는 가벼운 짐만 골라진다. 어떤 일에서나 자기타산부터 하고서야 남을 생각한다. 일을 조금 하고는

그것을 대단한것으로 생각하며 남이 몰라줄가봐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동지와 인민에 대해서는 열정적인것이 아니라 쌀쌀하고 무관심하며 무감각하다. 이러한 사람은 실상 공산당원이 아니며 적어도 순수한 공산당원이라고는 할수 없다. 전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베쮼이라 하면 누구 하나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그의 정신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산

서-차하르-하북변구의 군대와 인민들 중 베쮼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았거나 베쮼의사가 사업하는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매개 공산당원들은 반드시 베쮼동지의 이러한 참된 공산주의자의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

베쮼동지는 의사였다. 그는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기술을 깊이 연찬하였으며 전체 팔로군의 의료계통내에서

그의 의술은 매우 고명하였다. 이것은 다른것을 보면 마음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기술적인 일을 보잘것없고 출로가 없는 일로 여기고 천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매우 좋은 교훈으로 된다.

나는 베쮼동지를 한번밖에 만나지 못하였다. 그후 그는 나에게 편지를 여러번 보내여왔다. 그러나 분망한 탓으로 겨우 한번밖에 회답

하지 못하였는데 그나마 받아보았는지 알수 없다. 그의 서거에 대하여 나는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 지금 모두가 그를 기념하는것을 보아 그의 정신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는가를 알수 있다. 우리들은 조금도 사리사욕을 모르는 그의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 이 정신에서 출발한다면 인민에게 아주 리로운 사람으로 될수 있다. 사람의 능력

에는 크고작은 구별이 있지만 오직 이러한 정신만 가진다면 그는 고상한 사람이며 순수한 사람이며 도덕적인 사람이며 저급한 취미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인민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우공이 산을 옮겼다

(1945년 6월 11일)

우리의 대회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세가지 일을 하였다. 첫째로 당의 로선을 결정하였다. 이 로선은 즉 대담하게 대중을 발동하고 인민의 력량을 장성시켜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고 전국인민

을 해방하며 신민주주의중국을 건설하는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당규약을 채택하였다. 셋째로 당의 지도기관—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금후의 임무는 전당을 령도하여 당의 로선을 실현하는것이다. 우리의 이 대회는 승리의 대회이며 단결의 대회이다. 대표들은 세 보고에 대하여 매우 좋은 의견들을 발표하였다. 많은 동지들은 자기비판을 하였으며 단결의

목적에서 출발하여 자기비판을 거쳐 단결에 도달하였다. 이 대회는 단결의 모범이며 자기비판의 모범이며 당내민주주의의 모범이다.

대회가 끝나면 많은 동지들은 자기의 일터로 돌아갈것이며 각기 자기의 싸움터로 가게 될것이다. 동지들은 각 지방에 나가 대회의 로선을 선전하며 전체 당원동지들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광범한 해설사업을 진행하여

야 한다.

우리가 대회의 로선을 선전하는것은 전당과 전국인민에게 하나의 신념, 즉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려는것이다. 우선 선봉대를 각성시켜 결의를 굳게 다지고 희생을 무릅쓰며 만난을 물리치고 승리를 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또 전국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자원적으로

우리와 함께 싸워 승리를 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인민에게 중국은 반동파의것이 아니라 중국인민의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옛날 중국에는 《우공이 산을 옮겼다》는 우화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러하다. 옛날 화북지방에 북산우공이라고 하는 로인이 살고있었다. 그의 집 남쪽에는 두개의 큰 산이 드나드는 길을 가로막고있었다. 그 하나는 태

향산이라 하였고 또 하나는 왕옥산이라 하였다. 우공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 두 큰 산을 괭이로 파없애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지수라고 하는 령감이 이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당신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하오, 당신들 부자 몇이서 이렇게 큰 산 두개를 파없애려는것은 전혀 되지도 않을 일이요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우공은 내가 죽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죽으면 또 손자가 있을것이니 자자손손은 끝이 없는것이요, 이 두 산이 높기는 하지만 이 이상 더 높아질리는 없는거요, 파내면 파낸것만큼 줄어질텐데 왜 파없애지 못한단 말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우공은 지수의 그릇된 생각을 반박하고 조금도 동요없이 매일 산을 팠다. 이 일은 하느님을 감동시키게 되여 하느님은 두 신선을 인간세상에 내려보내여

두 산을 등에 져서 다른데로 옮겨가게 하였다. 오늘날 역시 두개의 큰 산이 중국인민의 머리를 짓누르고있는데 그 하나는 제국주의라는 산이고 또 하나는 봉건주의라는 산이다. 중국공산당은 이 두 산을 파없애려고 일찌 결심을 내렸다. 우리는 반드시 견지하여야 하며 계속부단히 사업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을 감동시키게 될것이다. 이 하느님은 다름

아닌 전중국의 인민대중이다. 전국의 인민대중이 한결같이 일떠나 우리와 함께 이 두 산을 파낸다면 파없애지 못할리가 있겠는가?

어제 나는 귀국하는 두 미국인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미국정부는 우리를 파괴하려 하는데 그것은 용서할수 없는것이다. 우리는 장개석을 원조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미국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로 미국인민들과 그들의 정부를 구별할것이며, 둘째로 미국정부내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하부의 일반직원들을 구별할것이다. 나는 이 두 미국인에게 당신들 미국정부내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것을 전하여달라고 말하였다. 즉 우리 해방구에서는 당신들이 오는것을 금지한다. 그것은 당신들의 정책이 장개석을 원조하고 공산당을 반

대하는것이여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수 없기때문이다. 만일 당신들이 일본을 치기 위하여 해방구에 온다면 와도 좋다. 그러나 조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당신들이 몰래 이리저리 함부로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허용할수 없다. 헐리는 이미 중국공산당과 합작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또 우리 해방구에 와서 함부로 돌아다니려 하는

가?

장개석을 원조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미국정부의 정책은 미국반동파의 창궐성을 말하여주는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민의 승리를 가로막으려는 모든 국내외반동파들의 시도는 결정적으로 실패하고야말것이다. 오늘 세계의 조류는 민주주의가 주류이고 반민주주의적반동은 역류에 불과하다. 오늘날 반동적역류는 민족독립과 인민

민주주의의 주류를 압도하려고 시도하고있다. 그러나 반동적역류는 어디까지나 주류로 될수 없는것이다. 오늘에 있어서도 여전히 쓰딸린이 오래전에 말한바와 같이 낡은 세계에는 3대모순이 있다. 첫째는 제국주의국가내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모순이며, 둘째는 제국주의국가간의 모순이며, 셋째는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와 제국주의종주국간의 모

순이다. 이 세가지 모순은 여전히 존재하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더욱 첨예하여졌으며 더욱 확대되였다. 반쏘, 반공, 반민주주의적 역류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 세가지 모순의 존재와 발전으로 하여 이러한 반동적역류는 반드시 극복되고야말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두개의 대회가 열리고있다. 하나는 국민당의 제6차대표대회이고

하나는 공산당의 제7차대표대회이다. 이 두 대회는 서로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있다. 하나는 공산당과 중국의 민주세력을 소멸하고 중국을 암흑에로 이끌어가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제와 그 앞잡이인 중국의 봉건세력을 타도하고 신민주주의 중국을 건설하여 중국을 광명에로 이끌어가려는것이다. 이 두 로선은 서로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중국인민이 중

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공산당 제7차대회의 로선의 령도하에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게 되리라는것과 국민당의 반혁명적로선은 반드시 실패하고말리라는것을 확신하는바이다.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데 관하여

(1929년 12월)

홍군 제4군의 공산당조직내에는 여러가지 비프로레타리아사상이 존재하고있다. 이것은 당의 정확한 로선의 집행에 커다란 방애로 되고있다. 만일 이것을 철저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위대한 혁명투쟁이 홍군 제4군에 부과한 과업을 감당해내지 못할것이다. 제4군 당조직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옳지 못한 사상의 근원은 물론 당의 조직기초의 최대부분이 농민과 기타 소부르죠아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여 있는데 있다. 그러나 당의 지도기관이 이러한 옳지 못한 사상에 대하여 한결같이 결정적인 투쟁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또 당원들에게 정

확한 로선에 대한 교양을 하지 못한것도 이러한 옳지 못한 사상이 존재하고 발전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된다. 대회는 중앙의 9월서한의 정신에 립각하여 제4군 당조직내의 여러가지 비프로레타리아사상의 표현, 근원 및 그 시정방법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숙청할것을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단순한 군사관점에 관하여

단순한 군사관점이 홍군내의 일부 동지들가운데서 엄중히 자라나고있다.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와 정치를 대립되는것으로 보면서 군사는 정치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군사가 잘되면 정치는 자연히 잘되고 군사가 잘

되지 않으면 정치도 잘될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군사가 정치를 령도한다고 여기는것이다.

(2) 홍군의 과업도 백군처럼 단순히 전투하는것뿐이라고 생각하며 중국의 홍군은 혁명의 정치적과업을 수행하는 무력집단이라는것을 모른다. 특히 지금에 있어서 홍군은 결코 단순히 싸우기만 하는 군대가 아니다. 홍

군은 적의 군사력을 소멸하기 위한 전투를 하는외에 또 대중에게 선전하며 대중을 조직하며 대중을 무장시키며 대중을 도와 혁명정권을 수립하며 나아가서는 공산당의 조직을 건립하는 등 중대한 과업도 지니고있다. 홍군이 싸우는것은 단순히 싸우기 위하여 싸우는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선전하며 대중을 조직하며 대중을 무장시키며 또 대중을 도와 혁명정권

을 수립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대중에 대한 선전, 조직, 무장 및 혁명정권수립 등의 목표를 떠나면 싸움이 무의미하게 되며 홍군의 존재자체도 무의미하게 된다.

(3) 그렇기때문에 조직상에서 홍군의 정치사업기관을 군사사업기관에 예속시키며 《외부일도 사령부에서》라는 구호를 제출하고있다. 이러한 사상이 발전해나간다면 국민당군대가 군벌주의길을

걷고있는것처럼 대중을 리탈하고 군대가 정권을 통제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평도를 떠나는 길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4) 동시에 선전사업에서 선전대의 중요성을 홀시하고있다. 대중을 조직하는 면에 있어서 군대의 병사위원회에 대한 조직사업을 홀시하며 지방의 로농대중에 대한 조직사업을 홀시한다. 그 결과 선전사업이나 조직

사업이 모두 취소상태에 빠져있다.

(5) 싸움에서 이기면 교만해지고 지면 소침해진다.

(6) 본위주의가 있다. 모든것을 제4군을 위하여 타산할줄만 알고 지방의 대중을 무장시키는것이 홍군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는것을 모른다. 이것은 확대된 형태의 소그루빠주의이다.

(7) 소수의 동지들은 제4군의 좁은 울타리안에 들어

앉아서 그밖에는 다른 혁명세력이 없는듯이 생각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실력을 보존하며 투쟁을 기피하려는 사상이 매우 농후하다. 이것은 기회주의의 잔재이다.

(8) 주관적조건과 객관적조건을 돌보지 않으며 혁명조급증에 걸려 세소하고 엄밀한 군중공작은 애써하기 싫어하면서 큰일만 하려 하며 환상에 가득차있다. 이것은 맹동주의의 잔재이다.

단순한 군사관점의 근원:

(1) 정치수준이 낮은것이다. 이로 인하여 군대에서의 정치적령도의 역할을 모르며 홍군과 백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것을 모른다.

(2) 고용군대의 사상이다. 전투때마다 적군을 많이 포로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자들이 홍군에 가입할 때 농후한 고용군대의 사상을 가지고오기때문에 단순한 군

사관점이 하부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3) 이상의 두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세번째 원인이 생긴다. 그것은 즉 군사적힘을 지나치게 믿고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는것이다.

(4) 군사사업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류의와 토의가 없는것도 일부 동지들의 단순한 군사관점을 형성시킨 원인으로 된다.

시정방볍:

(1) 교양을 통하여 당내의 정치수준을 높임으로써 단순한 군사관점의 리론적근거를 일소하고 홍군과 백군과의 근본적차이를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 동시에 또 기회주의와 맹동주의의 잔재를 숙청하며 제4군의 본위주의를 퇴치하여야 한다.

(2) 장병들에 대한 정치훈련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포로되여온 사람들에 대

한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될수 있는대로 지방정권기관으로부터 투쟁경험이 있는 로동자, 농민을 선발하여 홍군에 가입시킴으로써 조직상으로부터 단순한 군사관점의 근원을 약화시키며 나아가서는 제거하여야 한다.

(3) 홍군 당조직에 대한 지방당조직의 비판과 홍군에 대한 대중정권기관의 비판을 일으켜 홍군 당조직 및 홍군

장병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4) 당이 군사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류의하며 토의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은 당에서 토의, 결정한후에 대중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5) 홍군의 법규를 제정하여 홍군의 임무, 군사사업계통과 정치사업계통과의 관계, 홍군과 인민대중과의 관계, 병사위원회의 권한 및

그와 군사, 정치 기관과의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극단적민주화에 관하여

홍군 제4군은 중앙의 지시를 받은후로 극단적민주화의 현상이 많이 감소되였다. 례를들면 당의 결정이 비교적 잘 집행되여나가며 홍군내에서 소위 《아래로부터 우로의 민주주의집권제》를 실시하자, 《먼저 하급에서 토의

한 다음 상급에서 결정하자》는 등 그릇된 주장을 더 들고나오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한것으로서 극단적민주화의 사상이 숙청된것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극단적민주화의 뿌리가 아직 많은 동지들의 사상가운데 깊이 박혀있다. 례를들면 결정집행에서 여러가지로 마지못해하는 태도를 표시하는것

이 바로 그 증거이다.

시정방법:

(1) 리론상으로부터 극단적민주화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먼저 극단적민주화의 위험성은 당의 조직을 훼손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완전히 파괴하며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당으로 하여금 투쟁과업을 걸머질수 없게 하며 따라서 혁명의 실패를 초래하는

데 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극단적민주화의 근원은 소부르죠아적자유산만성에 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유산만성이 당내에 들어와 정치, 조직상의 극단적민주화의 사상으로 된다. 이러한 사상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과업에 전혀 용납되지 않는것이다.

(2) 조직상에서 중앙집권의 지도하에서의 민주주의적생활을 엄격하게 실시하

여야 한다. 그 로선은 다음과 같다.

1. 당의 지도기관은 옳은 지도로선을 가지며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옳은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지도적중추를 확립하여야 한다.

2.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실정과 대중의 생활형편을 잘 알고 이것을 정확한 지도를 위한 객관적기초로 삼아야 한다.

3. 당의 각급기관은 문

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제마음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일단 결정이 채택되면 그것을 견결히 집행하여야 한다.

4. 상급기관의 결정으로서 조금이라도 중요한것은 급속히 하급기관 및 당원대중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열성자회의를 열거나 지부 내지 종대의 당원대회를 열고(환경의 허락여부를 보아야 한다) 이 회의에 사람을 파견하여 보고를 하게

하는것이다.

5. 당의 하급기관과 당원대중은 상급기관의 지시를 상세히 토의하여 그 지시의 의의를 철저히 리해하고 그 집행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비조직적관점에 관하여

제4군 당조직내에 존재하고있는 비조직적관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표현되고있다.

ㄱ.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지 않는다. 례를들면 소수사람의 제의가 부결되였을때 그들은 당의 결정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시정방법:

(1) 회의에서 회의참가자들이 의견을 유감없이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론쟁이 있는 문제는 타협하거나 어물어물하여 넘기지 말고 시비를 밝혀야 한다. 한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재차 토의하

여(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명백한 결론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것은 당규률의 하나이다. 소수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이 부결되면 다수사람에 의하여 채택된 결정을 지지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제기하여 토의할수는 있되 행동상에서는 그 어떤 반대도 있어서는 안된다.

ㄴ. 비조직적비판:

(1) 당내비판은 당조직을 공고화하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무기이다. 그러나 홍군 당조직내에 있어서 일부 비판은 이렇지 못하고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결국 개인을 망칠뿐만아니라 당조직까지 망치게 된다. 이것은 소부르죠아적개인주의의 표현이다. 그 시정방법은 계급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당의 전투력

을 강화하는데 비판의 목적이 있다는것, 그리고 비판을 개인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리용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당원들에게 명백히 리해시키는것이다.

(2) 많은 당원들은 당내에서는 비판하지 않고 당외에서 비판하고있다. 이것은 일반당원들이 아직 당조직(회의 등)의 중요성을 리해하지 못하고 조직내에서 비판하든 조직외에서 비판하든

매일반이라고 생각하고있기때문이다. 그 시정방법은 당원들을 교양함으로써 당조직의 중요성을 리해시키며 당위원회나 동지들에 대하여 비판할것이 있으면 당회의에서 하여야 한다는것을 리해시키는것이다.

절대적평균주의에 관하여

절대적평균주의는 홍군내에서 한때 엄중하게 발전되였었다. 례를들면 부상병

에게 용돈을 내여주는데도 경상과 중상을 구별하는것을 반대하고 똑같이 내여줄것을 요구한다. 상관이 말을 타는것도 사업상 필요로 생각하지 않고 불평등한 제도로 생각한다. 물품을 분배하는데도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부분에 좀더 분배하는것을 좋아하지 않고 극단적인 평균을 요구한다. 쌀을 지고다니는데도 어른과 아이, 몸이 튼튼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가

리지 않고 똑같이 질것을 주장한다. 숙소를 분배하는데 있어서도 똑같이 분배할것을 요구하며 사령부가 좀 큰 집에 들어도 욕을 한다. 근무를 하는데도 골고루 할것을 요구하며 조금도 더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담가 하나에 부상병이 둘인 경우에 차라리 두사람이 다 타지 못할망정 한사람만 태우는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모든것은 홍군장병들가운데 절대적평

균주의가 아직 매우 엄중하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절대적평균주의는 그 근원을 따져볼 때 정치상에서의 극단적민주화와 마찬가지로 수공업 및 소농경리의 산물로서 하나는 정치생활면에 나타난것이고 하나는 물질생활면에 나타난것에 불과하다.

시정방법: 절대적평균주의는 비단 자본주의가 청산되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 농

민 및 기타 소소유자의 환상에 지나지 않을뿐만아니라 또한 사회주의시기에 있어서도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그 로동에 따라》라는 원칙과 사업수요에 의하여 물질을 분배하게 되므로 소위 절대적평균이라는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홍군인원에 대한 물질분배는 대체로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례를 들면 장병들의 급여가 평등

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시의 투쟁환경에 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일체 리유를 도외시하는 절대적평균주의는 투쟁에 필요한것이 아니라 반대로 투쟁에 방애되는것이기때문에 반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관주의에 관하여

주관주의가 일부 당원들가운데 농후하게 존재하고있다. 이것은 정치정세를 분석

함에 있어서나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나 다 매우 불리한것이다. 왜냐 하면 정치정세에 대한 주관주의적분석과 사업에 대한 주관주의적지도가 가져오는 필연적결과는 기회주의가 아니면 맹동주의이기때문이다. 당내의 주관주의적비판, 무근거한 공론 또는 호상협의는 흔히 당내에서 무원칙한 분규를 일으키며 당조직을 파괴하게 된다.

당내비판문제에 관하여

또하나 언급할것은 일부 동지들이 비판을 하는데 있어서 큰 면에 류의하지 않고 작은 면에만 류의하고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치적오유와 조직적오유를 지적하는것이 비판의 주요한 임무라는것을 모르고있다. 개인의 결함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정치적오유나 조직적오유와 련관되여있지 않다면 동지들이 어찌할바를 모르게 너무 많이 지적할 필요가 없다. 뿐

만아니라 이러한 비판이 발전해나간다면 당내의 주의력이 완전히 소소한 결함면에만 쏠리게 될것이고 사람들은 모두 소심한 군자로 되여버려 당의 정치적과업을 망각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시정방법: 주로 당원들을 교양함으로써 당원들의 사상과 당내의 생활을 정치화하고 과학화하는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1) 주관주의적으로 정치정세를 분석하거나 계급적력량을 평가할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적방법으로 분석하며 평가하도록 당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2) 당원들로 하여금 사회경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류의하며 이에 따라 투쟁전술 및 사업방법을 결정하게 하며 또한 동지들로 하여금 실정에 대한 조사를 떠나면 공상과 맹동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는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3) 당내비판에 있어서는 주관, 독단과 비판의 저속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발언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하며 비판하는데 정치적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개인주의에 관하여

홍군 당조직내의 개인주의적편향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다.

(1) 보복주의. 당내에서

병사동지의 비판을 받고서는 당외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게 보복한다. 때리거나 욕하는것이 바로 보복수단의 하나이다. 당내에서도 네가 이번 회의에서 내 말을 하였으니 나도 다음번 회의에서 너의 흠집을 끄집어내여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보복의 기회를 찾는다. 이러한 보복주의는 전적으로 개인적견지로부터 출발한것이며 계급의 리익과 당전체의 리익을 모

르는것이다. 그 목표는 적대계급인것이 아니라 자기 대렬내의 다른 개인이다. 이것은 조직을 약화시키며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부식제이다.

(2) 소그루빠주의. 다만 자기 소그루빠의 리익만 살피고 전체의 리익은 살피지 않으며 표면적으로는 개인을 위하는것 같지 않으나 실제적으로는 극히 협애한 개인주의를 내포하고있는것으로

서 역시 매우 큰 부식작용과 원심작용을 한다. 홍군내에는 그전부터 소그루빠기풍이 매우 성하였는데 비판을 통하여 지금은 좀 나아졌으나 잔재는 아직 남아있으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3) 고용사상. 당과 홍군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며 자기는 그중의 일원이라는것을 모르고있다. 자기가 혁명의 주체라는것을

모르며 자기는 혁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있는것이 아니라 다만 상관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있을뿐이라고 생각한다. 혁명에 대한 이런 소극적인 고용사상도 역시 개인주의의 표현이다. 혁명에 대한 이런 고용사상은 무조건적으로 노력하는 적극적인 열성자들이 그다지 많지 못한 원인으로 되고있다. 고용사상을 청산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열성자들이 증가될수

없으며 혁명의 무거운 짐이 언제나 소수사람의 어깨에 지워질것이다. 이것은 투쟁에 극히 불리하다.

(4) 향락주의. 개인주의를 향락면에서 표현하고있는 사람도 홍군내에 적지 않다. 그들은 부대가 대도시에 들어가기만 바라고있다. 그들은 사업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향락을 위하여 대도시에 가려고 한다. 그들은 생활조건이 어려운 홍색지역에서 사

엽하는것을 제일 싫어한다.

(5) 소극태업.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곧 소극적이 되여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주로 교양이 부족한데 있지만 지도일군들의 문제의 처리나 사업배치 또는 규률집행이 적절하지 못한데도 있다.

(6) 부대를 떠나려는 사상. 홍군내에서 사업하고있는 사람들가운데 부대를 떠나서 지방으로 나가 사업하

려는 사람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있는것도 아니다. 그밖에 첫째로, 홍군의 물질적생활이 너무 어려운것, 둘째로, 장기적투쟁에서 피로를 느끼고있는것, 셋째로, 지도일군들의 문제의 처리나 사업배치 또는 규률집행이 적절하지 못한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

시정방법: 주로 사상적으로 개인주의를 시정하기

위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처리, 사업배치, 규률집행을 옳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홍군의 물질적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가능한 모든 기회를 리용하여 부대를 휴식, 정비함으로써 물질적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인주의의 사회적근원은 당내에 반영된 소부르죠아 및 부르죠아 사상이라는 이 점을 교양과정에서 똑똑히 말하여

주어야 한다.

류구적사상에 관하여

홍군내에 룸펜성분이 큰 수자를 차지하고있으며 또 전국, 특히 남방 각 성에 광범한 룸펜대중이 존재하고있으므로 홍군내에 류구주의적정치사상이 산생되였다. 이 사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나타나고있다. 첫째, 간고한 사업을 통하여 근거지를 창설하고 인민대중의 정권을 수

립하며 이에 의거하여 정치적영향을 확대하려고는 하지 않고 류동적인 유격의 방법으로 정치적영향을 확대하려고만 한다. 둘째, 홍군을 확대함에 있어서 지방적위대, 지방홍군의 확대를 거쳐 주력홍군을 확대하는데로 나아가는 로선을 걸으려고는 하지 않고《병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들이며》,《투항병이나 반란병을 끌어모으는》로선을 걸으려 한다. 셋째, 대

중과 함께 간고한 투쟁을 하기는 싫어하고 대도시에 들어가 잘 먹고 편안히 지내기만 바란다. 이 모든 류구적 사상의 표현들은 홍군의 정확한 임무의 수행에 극히 큰 지장을 주고있으므로 류구적 사상을 숙청하는것은 실로 홍군의 당내사상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되고있다. 력사상의 황소나 리틈식의 류구주의가 오늘의 환경에서는 용허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정방법:

(1) 교양을 강화하고 옳지 못한 사상을 비판함으로써 류구주의를 숙청할것.

(2) 지금 있는 홍군의 기본대오와 새로 들어온 포로병에 대하여 룸펜의식을 반대하는 교양을 강화할것.

(3) 투쟁경험이 있는 로농열성자를 홍군대오에 가입시켜 홍군의 구성요소를 개변할것.

(4) 투쟁에 떨쳐나선 로농대중속에서 새로운 홍군부대를 창건할것.

맹동주의의 잔재에 관하여

홍군 당조직내에서 이미 맹동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왔으나 아직 불충분하다. 그렇기때문에 홍군내에는 아직도 맹동주의적사상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조건과 객관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행동한다. 둘째, 도시정책을 충분히, 견결히 집행하지 못한다. 셋째, 군사규률이 해이하다. 특히 패전하면 더 그러하다. 넷째, 일부 부대에는 아직도 가옥을 불사르는 행위가 있다. 다섯째, 탈주병을 총살하는 제도와 체형을 가하는 제도도 역시 맹동주의적성격을 띤것이다. 맹동주의는 그 사회적근원으로 보면 룸펜프로레타리아사상과 소부르죠아

사상의 혼합체이다.

시정방법:

(1) 사상상으로부터 맹동주의를 숙청할것.

(2) 제도 및 정책상에서 맹동적행위를 시정할것.

자유주의를 반대하자

(1937년 9월 7일)

우리는 적극적인 사상투쟁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내와 혁명단체내의 단결을 보장하여 그의 전투성을 강화하는 무기이기때문이다. 매개 공산당원과 혁명자는 이 무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사상투쟁을 거부하고 무원칙한 화목을 주장한다. 그 결과 부패하고 저속한 작풍이 생겨 당 및 혁명단체의 일부 조직과 일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게 된다.

자유주의에는 여러가지 표현이 있다.

잘 아는 사람, 고향사람, 동창생, 지기의 벗, 친애하는 사람, 오랜 동료, 오랜 부하라고 하여 옳지 못한

것을 뻔히 보고서도 원칙적인 론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화목과 친밀만 유지하려 하거나 슬쩍 몇마디 하는데 그치고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며 두루뭉실하게 지내려 한다. 그 결과는 단체에 해로우며 개인에게도 해롭다. 이것이 첫째 종류이다.

적극적으로 조직에 제의하는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배후에서 비판한다. 대면해서는 말하지 않고 배후에서

함부로 말하며 회의석상에서는 말하지 않고 회의후에 함부로 말한다. 마음속에 집단생활의 원칙은 없고 자유방종만 있다. 이것이 둘째 종류이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하여 본체만체하며 옳지 못한것을 뻔히 보고서도 말을 적게 하는것을 상수로 여기며 명철보신하면서 제 앞만 가린다. 이것이 셋째 종류이다.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고 개인의견만 내세운다. 조직에서 돌봐줄것만을 요구하고 조직의 규률은 싫어한다. 이것이 넷째 종류이다.

단결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일을 잘하기 위하여 옳지 못한 의견과 투쟁하고 론쟁하는것이 아니라 개인공격을 하며 감정에 흐르며 분풀이를 하며 보복을 하려 한다. 이것이 다섯째 종류이다.

옳지 못한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론박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서도 보고하지 않고 아무일도 없는듯이 태연하다. 이것이 여섯째 종류이다.

군중과 상대하면서도 선전하지 않으며 선동하지 않으며 연설하지 않으며 조사하지 않으며 물어보지 않으며 군중의 고통에 관심하지 않고 모르는체하며 자기가 공산당원이라는것을 망각하고 공산당원을 일반사람들과 혼동하여버린다. 이것이 일곱째 종류이다.

대중의 리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보고서도 분개하지 않으며 충고하지 않으며 제지하지 않으며 해설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 이것이 여덟째 종류이다.

사업에 착실하지 못하며 일정한 계획이나 일정한 방향이 없이 어물어물해치우고 그려저력 지나며 종이나 치

고 세월을 보내는 중처럼 하루하루를 허송한다. 이것이 아홉째 종류이다.

혁명에 공로가 있다고 자처하면서 경력이 길다는 자세만 부리며 큰 일은 해내지 못하고 작은 일은 하려 하지 않으며 사업을 되는대로 하며 학습에 게으르다. 이것이 열째 종류이다.

자기가 잘못하고 또 그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고 자기자신에 대하여

자유주의를 취한다. 이것이 열한째 종류이다.

이밖에도 더 들수 있으나 주요한것은 이러한 열한가지이다.

이러한것은 모두 자유주의의 표현이다.

혁명적집단조직내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매우 해로운것이다. 그것은 단결을 와해시키며 호상관계를 벌어지게 하며 사업에 소극적이 되게 하며 의견상이를 일으키

는 일종의 부식제이다. 그것은 혁명대렬로 하여금 엄밀한 조직과 규률을 가질수 없게 하며 정책이 철저히 관철될수 없게 하며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대중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한다. 이것은 극히 나쁜 경향이다.

자유주의의 근원은 소부르죠아적개인리기심이다. 즉 개인의 리익을 제1위에 놓고 혁명의 리익을 제2위에 놓기 때문에 사상, 정치, 조직상

에서 자유주의가 생기게 된다.

자유주의자는 맑스주의의 원칙을 추상적인 교조로 본다. 그들은 맑스주의를 찬성하기는 하지만 실천하려하지 않거나 완전히 실천하려 하지는 않으며 맑스주의로써 자신의 자유주의를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맑스주의도 가지고 있으며 자유주의도 가지고있다. 즉 말은 맑스주의이나 행

동은 자유주의이며 남에게는 맑스주의이나 자신에게는 자유주의이다. 그들은 두가지를 다 가지고있으면서 각기 딴 용처에 사용한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의 사상방법이다.

자유주의는 기회주의의 표현의 하나로서 맑스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것이다. 그것은 소극적인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적을 돕는 역할을 놀므로 적들은 우리 내

부에 자유주의가 그냥 존재하는것을 좋아한다. 자유주의란 본래 이런것이므로 혁명대렬내에 그것이 존재할 자리를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적극적인 맑스주의정신으로써 소극적인 자유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공산당원은 솔직하며 충직하며 적극적이며 혁명의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삼고 개인의 리익을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원칙을 견지하고 모든 부정확한 사상, 행위와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의 집단생활을 공고히 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공고히 하여야 하며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 당과 대중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야 한다. 그래야만 공산당원이라 할수 있다.

충성스럽고 솔직하고 적극적이고 정직한 모든 공산

당원들은 단결하여 일부 사람들에게 있는 자유주의적경향을 반대함으로써 그들을 옳은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상전선에서의 임무의 하나이다.

毛主席的五篇著作
*
外文出版社出版（北京）
1972年版
编号：（朝）1050—1886
00023
1—K—911Pk